



광주교통공사, 민·관 협업 농촌 일손 돕기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농협광주본부와 함께 광주시 북구 평촌마을 일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공사는 농촌 지역 영농 활동 지원을 포함해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소외지역 사회공헌 봉사 등 도농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봉사에서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3개 기관 임직원 30여명이 마을의 포도 농가를 찾아 병해충 차단을 위한 봉지 포장 작업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조직원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취약지 의료인력 교육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전남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인력의 실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

지난 19일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과 함께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공동 주관하고, 고흥 썬밸리 리조트와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처치 및 이송·전원 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에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보건진료소장 38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또 이론교육 후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의회, 주월중 학생들과 모의의회 개최

광주광역시의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월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6회 광주시의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주월중학교 학생 16명이 참여,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점과 대응책’, ‘버리는 것이 아닌 살리는 재활용이 필요한 시대’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고 ‘주월중의 교복 자율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전자투표로 의결했다.

의장을 맡은 김지호 학생은 “의장 역할을 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며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 합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현 기자



광주국세청, 모범납세자 프로야구 경기 관람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모범납세자 등 170여명을 초청해 프로야구 시구·시타 및 단체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야구 관람에 앞서 박광중 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 감사 홍보영상과 함께 초청 납세자(21명)를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사진과 회사명이 담긴 부채(모범납세자 전체 92명, 350개)를 제작·배부하고, 열띤 응원에도 활용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합동 주거환경개선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1일 광주자원봉사센터, 광주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활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민·관·학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봉사에에는 광주형 마이스터고 광주공고 ‘빛고을학생봉사단’ 학생들과 복지관·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여해 주거 정리정돈, 도배, 전등 교체, 노후 생활용품 정비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광주공고 학생들은 전공 실습을 바탕으로 전기 보수, 수리 작업, 실내 정비 등 기술봉사에 적극 참여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광주자원봉사센터, 광주공고 빛고을학생봉사단과 함께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꾸준히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우 기자



동강대 AI융합드론과 전국무대 우승

동강대학교가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 실력을 전국무대 우승으로 증명했다. (사진)

지난 19일 동강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AI융합드론과를 신설한 이래 최근 광주북구드론공원에서 열린 ‘제5회 광주북구청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 시니어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과 (사)대한드론축구협회(KDSA) 규정에 따라 48개 팀 500여명이 참여했다.

동강대 AI융합드론과는 임정배(2년)·김성중(1년) 씨 등 6명이 이벤트 경기로 펼쳐진 시니어부에 참가해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했다.

동강대는 탄력적인 학과 운영으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노병하 기자

인사

광주시교육청 ◇4급 승진 △전남대학교 교육협력관 정광희 △광주 중앙도서관장 김정희 ◇4급 전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영미 ◇5급 승진 △행정국 시설과 미래학교복합시설담당 박재형 ◇5급 전보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최기영 △감사관 공익감사담당 유영현 △정책국 안전총괄과 산업재해예방담당 박옥희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대안교육담당 유경아 △행정국 총무과 총무담당 노진희 △행정국 총무과 비서실장 장상석 △행정국 조직복지과 자치협력담당 유선주 △행정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담당 박영태 △행정국 시설과 학교시설1담당 최인주 △행정국 시설과 학교시설2담당 김근열 △행정국 시설과 학교

설비담당 박광석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장 변수진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신우진 △금호평생교육관 문헌정보과장 서효정 △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안현아 △유아교육진흥원 관리과장 최금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임효숙 △전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윤상선 △상무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영희

동구청 ◇4급 승진 △기획예산실 기길호 △복지정책과 김정애 ◇5급 승진 의결 △청렴감사관 이상철 △노인장애인복지과 허장 △도시공간계획과 이수일 △마을자치과 박승배 △회계과 신승부 △산수2동 방소형 △주거정책과 최배성



동신대 선도연구센터, 피부질환 세미나 성료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는 지난 19일 권혜숙 박사(JASPER Therapeutics, 미국)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22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 권 박사는 ‘만성 자발 두드러기의 치료에서 단일 클론 항체 표적 치료’를 주제로 연구를 소개했다.

만성 자발성 피부질환은 인체 면역력의 불균형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한다.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도 비만세포(mast cell)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만세포 표면의 c-KIT 타이로신키나제 수용체 발현이 증가됨이 보고됐다.

권 박사는 이 점에 착안해 c-KIT 타이로신키나제 수용체에 대한 항체치료제 브리퀼리맵(Briquilimab)을 개발해 줄기세포 인자(SCF)가 c-Kit에 결합하는 것을 특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만세포의 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해 비만세포 활성화로 인한 만성

자발성 피부질환이 개선된다는 것을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면역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임상 및 임상 연구 단계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미현 센터장은 “본 센터의 주요 질환인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우울증도 면역 불균형에 의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전연구와 치료전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기초의과학분야 주관연구기관(MRC, Medical Research Center)으로 선정돼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 수질분석 우수기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탁월한 수질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광주광역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올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수련도 시험과 국제공인 수련도 시험 운영기관(ERA) 수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18개 항목 모두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측정분석 능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수련도 시험은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제 수련도 시험은 세계 각국의 시험·검사기관이 참여해 시험·검사 결과

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43)의 인증을 받은 수련도시험 주관기관이 배포한 미지의 시료를 분석한 후 결과 값을 제출해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받는 평가방법이다.

수질연구소는 이번 국내외 검증기관 수련도 시험에서 먹는물 분야 미생물 1항목, 중금속 5항목, 소독부산물 3항목, 이온류 4항목, 농약류 2항목, 유·무기물 3항목 등 7개 분야 총 18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국제 수준의 수질분석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숙경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분석 역량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